

# 로버트 피터슨 박사, 누가-행전 신학, 12회, 존슨 – 우리는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지침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저는 세션 번호 12, Dennis Johnson입니다.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지침.

사도행전에 대한 FF 브루스의 서론을 살펴본 후, 나는 P&R 출판사에서 출판된 데니스 존슨(Dennis Johnson)의 저작인 구속사에 나타난 사도행전의 메시지로 넘어갑니다. 루크의 말을 듣고 있습니다.

누가 사도행전을 필요로 합니까? 시나리오 1. 교회들은 잠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소그룹은 스스로를 주장합니다. 성경 공부와 주일학교 수업은 예측 가능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길을 걷습니다.

예배가 일상이 됩니다. 증거하는 일이 전문가의 일이 됩니다. 그리고 연민? 어디 보자, 다음 주 목요일에 한 시간 문 열어 두겠다.

친숙함이 만족과 안주를 낳을 때, 좋은 질서가 엄격한 규칙으로 변할 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뭔가 잘못되었음을 느낍니다. 그들은 항상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어서 참으로 정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다시 알아보기 위해 책을 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붉은 열심의 깃발이 흔들리고 초점이 흐려질 때, 우리는 사도적 협력자이자 주님의 행위를 기록한 누가가 성령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행위를 설명하는 말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시나리오 2.

감정은 극도로 격렬해지며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한 기쁨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딸과 아들의 출산율이 치솟고, 갓난아기들은 먹을 것과 보살핌을

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교회는 정원사가 거름을 주고, 훈련시키고, 손질하는 것보다 더 빨리 생겨납니다.

거짓 목자들은 갓 태어난 어린 양들 사이로 몰래 들어와서 그들을 무리에서 떼어냅니다. 이교도 채석장에서 새로 깎아 만든 날카로운 모서리의 살아있는 돌들은 그리스도의 새로운 영적 집에서 서로 부딪히며 마찰로 인해 열이 발생합니다. 성령의 생명의 숨결은 모든 사람이 균형을 잃을 정도로 강력하게 불어옵니다.

부흥의 불길이 교회에 불을 붙일 때, 하나님의 거룩하고 은혜로운 임재 앞에 지진이 일어날 때, 그리스도의 자비로운 능력의 기쁜 메시지가 희망을 버린 사람들을 감싸줄 때, 우리도 행동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구원의 기쁨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겸손한 마음이 없어도 공허한 고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열정은 모든 숭배를 받을 가치가 있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 자체에 집착할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권위는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위조되어 예수님의 어린아이들과 그분의 이름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믿음의 싹이 지속적인 열매를 맺으려면 말씀을 먹고 진리로 양육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자녀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생활이 무엇인지 그분으로부터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흔들 때, 우리에게 흔들림이 필요할 때 못지않게 우리는 성령의 말씀의 시금석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사도들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가 열방 중에 어디에 흩어져 있든, 우리가 사도행전 또는 사도행전이라고 부르는 누가복음 제2권은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고 성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교회에 가서 우리의 교제가 청사진에 어떻게 들어맞는지, 아니면 맞지 않는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짜릿했던 과거로 돌아가면서, 우리는 신약성서의 서신서, 즉 삶의 지침이 실제 역사에 구체화된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결국 실제입니다.

그곳은 잘 지내지 못하고, 따라잡지 못하고, 항상 제자도의 도전에 열성적으로 일어서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역사는 성령의 탐색, 성령의 조용하지만 보이지 않는 힘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며 부활하시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의 강력한 영향력을 입증한다는 점에서도 실제적입니다. 사도행전은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두 가지 중요한 질문.

오늘날 우리 교회를 비추기 위해서는 교회 초기의 빛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사도행전에서 배운다는 것은 분명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사도행전에서 20세기나 21세기의 질문에 맞춘 명확한 지시나 대답의 형태가 아니라 역사적 서술의 형태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에 대한 기록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두 가지 중요한 질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첫째, 그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결은 무엇입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그때 일어난 일로부터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는가? 서술된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평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에 기록되도록 요구하시는 모든 행동과 사건을 승인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성경의 내러티브는 인간의 추악하고, 음탕하고, 어리석고, 폭력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성경의 서술자가 다양한 방식으로 독자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행위를 엄중히 정죄하십니다.

구약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을 위한 율법인 토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구조가 보여 주듯이,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종들의 신실함과 불충실함은 다음 세대에 대한 엄숙한 간증과 경고로서 예언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있습니다.

교회의 주님께서 분명히 반대하시는 행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위선, 사마리아인 시몬의 권력 추구, 에베소 은장색들의 탐욕, 유대 지도자들의 질투에 대해 읽습니다. 그러한 경우,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교회가 사도행전에서 읽은 모든 내용을 복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데 거의 어려움이 없습니다.

첫째, 이야기된 사건들에 대한 하나님의 도덕적 판결은 무엇입니까? 둘째, 모든 시대를 승리하기 위해 전체 교회에 대한 규범은 무엇입니까? 이 두 번째 질문은 더 어려운 문제를 제기합니다. 성경의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승인하신 사건이나 관행에 대해 읽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가 그 특징을 재현하기를 원하신다고 가정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 아브라함은 기꺼이 아들 이삭을 희생으로 바친 것에 대해 하느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할까요, 더 정확하게는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도 우리 자녀를 희생으로 바침으로써 그분의 행동을 본받아야 합니까? 아니면 주님께 대한 변함없는 믿음과 절대 충성의 태도를 본받아야 할까요? 마찬가지로 사도행전과 초대 교회에 보면 어느 누구도 자기 소유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모든 소유를 공유했습니다.

432 NIV.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삶을 위해 어떤 교훈을 배워야 할까요? 우리는 초기 교회가 나눔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이 칭찬을 하나님께서 공산주의가 아닌 급진적인 경제적 공동체주의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암시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오늘날 교회의 공동체주의는요? 아니면 이 본문의 문화를 초월하는 교훈은 단순한 모방보다 더 깊은 반응, 즉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일치 표현하기 위해 값비싼 친교에 대한 진심 어린 헌신을 요구합니까? 나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돕기 위해 모든 것을 공유하고 돈과 땅을 바친 사도행전의 구절에 대해 석사 논문을 쓴 친구를 알고 있다고 덧붙일 수 있습니다. 그의 논제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그렇게 하라고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지만, 그의 결론 중 하나는 그것이 특정 장소와 특정 시기에 교회를 위한 가능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것이 흥미로웠다고만 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는 그것이 명령되지 않은 우리 형제 데니스 존슨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아마도 그는 교회가 특정 상황에서, 특정 시기에 특정 이유로 일시적으로 그러한 패턴을 따를 수 있다고 말할 때 존슨을 넘어서는 것 같습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답변. 첫 번째는 우리의 딜레마가 역사적 선례의 문제라고 불러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기 교회의 역사적 묘사는 어떻게 오늘날 교회의 규범적인 선례가 됩니까? 이 질문에 대해 두 가지 극단적인 대답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첫째, 주님께서 인정하신 사도행전의 모든 것이 오늘날 교회에도 재현되어야 합니다. 교회의 일부 오순절파와 은사주의파는 마치 사도행전의 모든 선한 것이 오늘날의 교회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2장을 통해 우리가 그리스도를 신뢰하게 된 지 오랜 후에 성령침례가 신자들에게 주어진다고 결론을 내립니다. 다른 사람들은 교회 지도자가 룯에 의해 선택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1장). 또는 성령에 속한 사람은 뱀을 안전하게 다룰 수 있다고 믿습니다(28장). 그러나 나는 이 대답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사람을 알지 못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다음의 모든 것이 모든 교회에서 발견되어야 한다고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Dennis Johnson이 검토하고 있는 두 가지 극단적인 답변입니다. 첫째, 주님께서 승인하신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이 오늘날 교회에도 재현되어야 합니다.

이제 그는 터무니없는 논쟁을 벌이고 있으며, 이 문제에 대한 터무니없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사도행전의 모든 것을 오늘날에도 실천해야 한다는 이 원칙을 엄격하게 따른다면, 다음의 모든 것이 모든 교회에서 발견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A.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길을 걸으며 부활의 목격 증인이 된 사도들.

B. 성령은 지진과 폭풍 가운데 임하신다. C. 설교자들을 감옥에서 인도하는 천사들. D. 하나님께서 즉시 집행하시는 사형에 의한 교회 권징.

우리는 여기서 같은 배를 타고 있습니다. 진짜 어려움은 모든 대답 자체가 신약성서의 신학과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신약성경의

나머지 부분과 함께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를 주기 위해 택하신 사도들에게 뭔가 특별한 것이 있음을 알려줍니다.

행 1:2, 3, 행 1:22, 행 2:23 이하. 행 1:2, 3. 예수께서는 자신이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명하셨다.

고난 받으신 뒤에도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리고 22절. 그들이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택할 때 그는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드나드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있었던 사람 중 하나임에 틀림없었습니다.

행 1:21, 22. 요한의 세례로부터 시작하여 그가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간 날까지.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그분의 부활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2시 32분은 어때요? 베드로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것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라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사도행전 2:32. 사도들은 신약의 선지자들인 선지자들과 함께 교회의 기초를 이루었습니다.

에베소서 2:20. 물론 가장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초석이십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잇돌이 되셨습니다. 믿지 아니하고 이제는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것이라. 그리스도 예수 자신이 모퉁잇돌이십니다. 바울은 그 건물에 대한 비유를 계속합니다.

그러므로 사도의 증언은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친히 확증하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2, 3, 4장.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은 FF 브루스가 앞서 참 사도의 표징이 너희 가운데서 지극히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으로

행해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을 말하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사도들과 관련된 놀라운 사건 중 일부가 독특하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라고 기대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지상 사역의 기적처럼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보다 더 깊고 먼 구원을 드러내는 눈에 보이는 표징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권능의 행위는 마음의 숨겨진 치유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재림에 동반될 우주적 쇄신을 미리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이러한 근본적인 능력의 표적을 보여줄 뿐 아니라 오늘날의 교회도 결함이 있거나 영적이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독특함에 초점을 맞추고, 그 구원의 전환점에 대한 증인으로서 사도들의 특별한 역할을 존중하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사도행전이 오늘날 예수의 제자로서 우리의 삶을 형성하는 데 전혀 역할을 하지 않을 정도로 사도 시대의 독특성을 강조해서는 안 되며, 반대 극단의 오류도 마찬가지로입니다. 그래서 데니스 존슨이 말하는 것은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도행전이 복제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두 가지 극단적인 답변. 모든 것은 재현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불가능하고, 터무니없고, 건강에 해롭습니다.

둘째, 또한 거부해야 할 극단적인 대답은 오늘날 교회에 규범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Johnson이 이 문제를 어떻게 탐색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견해를 일관되게 견지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의심스럽습니다.

전도하지 말라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나요? 우리는 교회를 형성해서는 안 되는가? 그러나 초기 교회 생활의 활력이 우리 자신의 현 상태에 도전할 때, 비록 사도행전이 교회의 초기 단계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이러한 묘사가 오늘날 우리 삶의 지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들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자원을 모은 이유가 베드로의 설교를 믿었던 순례자들이 교훈을 받기 위해 잔치 후에도 머물렀던 오순절 직후의 특이한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인들이 사유재산에 열광하는 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테네에서의 바울의 변증 전략이 지적인 논쟁의 잘못된 사용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비록 누가와 하나님의 영이 화성 언덕에서 바울의 연설을 복음 선포의 긍정적인 예로 포함하고 있음에도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이 왕국에 들어가도록 주장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왕국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사과를 하지 마세요.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글쎄요, 당신은 복음을 전파하지만 바울은 여러 집단, 즉 유대인들에게 한 다양한 연설에서 그의 연설이 이교도들에게 하는 연설과 매우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존슨이 보여주듯이 누가와 성령이 두 가지 패턴을 모두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이 극단적인 대답은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우리를 불편하게 하거나, 누가의 글에서 드러나는 목적을 위반할 때 우리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는 확실히 역사를 쓰는 데 관심이 있지만, 역사적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냉정하게 역사를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데오필로와 그와 같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배웠으나 자신들이 들은 삶을 변화시키는 메시지를 확증하기 위해 철저하고 질서정연한 기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흥미롭습니다. 우리는 학자들이 서문, 특히 데오빌로가 처음 언급되는 누가복음의 서두에서 물론 사도행전 1장 1절에서도 사도행전의 후원자로 언급되는지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헌신적입니다. 논쟁은 그가 이미 확증을 필요로 하는 신자였는가 아니면 불신자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다양한 출처에서는 그를 신자로 여겼습니다.

나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약 복음서의 전도자 중 누가만이 예수님의 지상 생애의 속편을 썼습니다. 이는 그가 사도적 목격자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부족한 사람들을 위해 글을 쓰고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누가복음은 이에 대한 훌륭한 예입니다. 누가는 성경 내러티브, 즉 예언적으로 해석된 역사의 전통을 고수합니다. 그의 멘토가 구약 역사의 목적을 윤리적 교훈으로 묘사한 것처럼 그는 우리의 신앙과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그가 기록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임이니라 구체적으로 민수기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은 죄에 대해 고린도 교인들에게 경고하고 있으며, 그것을 우상 숭배, 성적 부도덕, 하나님 시험, 원망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1절 이런 일이 저희에게 본보기로 되었으나 말세를 만난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누가는 그의 멘토인 바울이 구약 역사의 목적을 우리가 방금 본 대로 윤리적 교훈과 가르침으로 묘사한 것처럼 우리 삶에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를 기록합니다. 로마서 15:4, 디모데후서 3:16 참조. 로마서 15장 4절은 무시되고 매우 중요합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위로와 인내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

확실히, 기초 사도 시대는 기초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는 또한 그 위에 건축될 건물의 윤곽을 결정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서문적인 문제에서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으로 이동합니다. 우리는 누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개요를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신약성서의 서신에 비추어 사도행전을 읽어야 합니다. 세 사람은 구약에 비추어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네 사람은 누가복음의 첫 번째 책을 고려하여 그것을 읽었습니다. 다섯 명은 그 구조를 고려하여 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메시지를 발견하고 적용하기 위한 지침.

전부도 무도 답이 아닌 것이 오늘날 교회에 미치는 사도행전의 규범적 영향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지침이 아니라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누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누가는 역사상 하나님의 구속 행위의 절정인 역사 속 사도행에 대해 쓰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와 복음서에서처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사도행전에서도 중심 무대를 차지합니다.

물론 하나님을 구하는 행위는 항상 우리의 반응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올바른 행동에 대한 교훈의 출발점은 우리의 의무 목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성취에 대한 선언이며, 우리를 그분과 은혜의 관계로 이끄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는 초대교회의 삶과 전도에 관한 정보가 담겨 있지만, 그것을 교회 정치나 선교 정책의 매뉴얼로 바꾸려고 한다면 우리는 좌절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절차와 전략에 관한 우리의 많은 질문보다 더 심오하게 실용적이고 다문화적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의 재림, 교회 안에서 역사하는 신성한 능력, 그 강력한 임재의 결과, 그리고 사도행전 1:11까지 우리가 사명을 추구해야 하는 환경 사이에서 교회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행 1:11) 둘째, 우리는 누가의 목적에 비추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우리는 신약성서의 서신에 비추어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누가는 역사가이면서 신학자이다. 그가 우리 가운데 성취된 일들을 기록하고 인용하면서(눅 1:1), 그는 또한 이 사건들을 이해하고 그리스도의 영의 인도를 받는 해석자로서 그 사건의 중요성을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러한 의미를 예를 들어 신학적 에세이가 아닌 역사 서사라는 장르를 통해 전달한다는 것 자체가 장점과 한계를 동시에 갖고 있다.

한 가지 장점은 누가가 하나님의 구원과 헬레니즘 역사의 세부 사항 사이의 접점을 보여줌으로써 기독교 신앙이 신비주의, 신화, 사변에 뿌리를 둔 종교와 얼마나 다른지 보여 준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르매 그들이 다 한 곳에 모였더라. 행 3:1,2, 마침 제 구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데 날 때부터 앓은뱅이를 메고

오는지라 그를 날마다 성전이라 불리는 문 앞에 두니라 성전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공양을 구하는 아름다운 문입니다.

이것은 누가가 인용한 역사의 세부 사항입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의 역사적 근거와 기독교 신앙이 신비주의, 신화, 추측에 뿌리를 둔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신비주의는 우리가 성령을 통해 직접 하나님을 찾는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성경과 같은 책이 필요하지 않으며, 우리를 도와줄 교사나 목사 또는 다른 사람들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은 그분의 영을 통해 우리의 영에 가장 심오하게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십니다. 어쩌면 마음을 우회해서라도 소통하실 수도 있습니다. 로마 종교인 신화는 신들과 그들의 모험, 그리고 그들의 죄에 대한 전체 신화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상당히 터무니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많은 신화적 배경이었습니다. 사변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제 없이 만연하는 철학이자 인간의 이성입니다. 누가는 기독교 신앙이 신비주의, 신화, 추측과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시적인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인격적인 하나님이 역사에 개입하셨다는 사실을 증인들이 증언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아버지께서는 오순절 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인도에 따라 고넬료의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사울이었던 바울은 역사상 하나님에 의해 극적으로 회심하여 이방인을 위한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한 가지 한계는 역사 서술 장르 자체가 자료 배치, 설교 이야기, 구약 본문과 주제에 대한 언어적 암시를 통해 간접적으로만 신학적 설명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 목적에 충실하기 위해 서술자인 누가는 가능한 모든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광범위한 해설이나 신학적인 에세이를 사용하여 이야기에 뛰어 들 수 없습니다.

그는 신학적인 논평을 하기는 하지만 수필은 하지 않습니다. 서신은 복음의 의미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고 솔직하게 설명하기 위한 이상적인 장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삶과 믿음과 삶을 지도하고 바로잡기 위해 명백히 쓰여진 신약성서의 서신들은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 적용할 수 있는 사도행전의 적용에 대해 필요한 점검을 제공합니다.

그러므로 서신서에는 자리가 있습니다. 만약 사도행전의 신학적 결론이 서신서의 교리와 어긋난다면, 우리는 처음부터 다시 돌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의 가르침에 대한 우리의 이해에는 뭔가 잘못된 것이 있습니다.

신약 전체의 가르침에 대한 사도행전의 특별한 기여를 최소화하지 않고 일단 사도행전의 목적을 인식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권고에서 입증되지 않은 이야기의 모든 요소를 오늘날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데 주의할 것입니다. 서신. 나는 내 작업과 다른 기독교 신학자들의 경험을 통해 사도행전이 무시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요.

서신서는 가르침이 가장 분명하게 설명되어 있는 곳이지만, 우리는 성경 이야기 전체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는 확실히 복음서, 사도행전, 요한계시록, 특히 이 문맥에서는 누가-행전을 의미합니다. 셋째, 우리는 구약의 관점에서 사도행전을 읽습니다.

사도행전의 연설과 설교에서 구약의 중요성은 성경을 읽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명백하며, 특히 청중이 성경의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예수의 증인들은 메시아의 출현에 비추어 성경을 인용하고 해석했으며, 그의 사역, 죽음, 부활, 성령의 부어짐이 어떻게 이러한 예언적 기록을 성취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구약성서에 대한 누가의 빛은 설교에서 구절을 인용하는 것보다 더 깊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 스타일에 히브리어 말하기 방식의 반향을 포함시켰으며, 히브리 예언 역사의 전통에서 자신이 쓰고 있는 메시지를 조용하지만 광범위하게 강화하고 메시아의 사역에서 그 전통의 절정을 증언했습니다.

더욱이 사도행전과 구약성경의 연관성은 단어와 문법의 문제 그 이상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주제들, 성령, 종, 거룩한 심판, 선지자들의 흠어짐, 박해 등이 그의 교회 안에 부활하신 주님의 임재를 통해 새롭게 실현되는 것을 봅니다.

나는 그 주제 중 일부를 다시 언급하겠습니다. 주의 종 곧 예수이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과 선지자들의 흠어짐과 핍박이 되어 신약의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다른 주의 종들의 핍박이 되느니라. 다음 강의에서 우리는 사도행전의 가르침에 관한 존슨의 유용한 가르침을 계속할 것입니다.

누가복음-사도행전 신학을 강의하는 Dr. Robert A. Peterson입니다. 저는 세션 번호 12, Dennis Johnson입니다. 사도행전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지침.